

목포시, 김산업 거점도시 '자리매김'

작년 1억3300만 달러 수출 달성 미래 전략산업 육성 행정력 집중 2026년 마른김겨래소 개장 앞뒀

목포시가 지난해 마른김 수출 1위에 오르며 김산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 1억 3,3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한 3,000만 달러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해 9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3년 연속 마른김 수출 1위를 기록한 목포시는 김산업 선도 도시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목포시가 김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과 지원을 집중해온 결과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에 나서며 김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2년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산업 전문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사업에 선정, 마른김 품질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획득하며, 수산식품 연구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목포시는 김 가공과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



목포시가 지난해 마른김 수출 1위에 오르며 김산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구개발과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물 품수출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조성된다. 수출단지에는 지역수산물에 이용한 소비 트렌드 맞춤형 신제품 상품화 등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마른김겨래소,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거래소, 수출지원 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임대형 가공공장은 김을 비롯한 해조류, 전복, 어묵, 어패류 등 목포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36개소의 가공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6년 개장하는 국제마른김겨래소는 유통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마른김 거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목포를 '세계 김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김 수출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의 문화, 감성, 자부심을 세계에 전하는 일이다"며 "김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나주 남평읍 '청정전남 으뜸마을' 조성

나주시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남평읍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3년간 매년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마을 환경 정비와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주민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자긍심 고취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평읍은 지난해 13개 마을에 이어 올해는 3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 총 16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년 차 4개 마을, 2년 차 3개 마

을, 1년 차 9개 마을로 구성해 연차별 특색 있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정된 광이마을은 교통사고 예방과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생활안전 교통아트 사업을 추진해 마을 진입로 차선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

사업 2년차를 맞은 주봉마을은 지난해 우편함과 문패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 따뜻한 아름다운 마을 분위기를 조성했다.

드들강 전원마을은 소공원 조성, 수정마을과 서원마을 분리수거함 설치 등 마을별로 주민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담긴 다양한 경관 개선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재덕 남평읍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정이 깊어지고 마을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있다"며 "남평읍이 살기 좋은 명품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군, 경로당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호응

함평군이 지역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 100세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순분면과 보전소, 주민복지과가 협력해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 34개 마을을 순회하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100세 시대에 발맞춰 기초건강검진, 치매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 발마사지, 네일아트, 피부관리,

염색,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돕는다.

순분면은 최근 호산경로당과 수문경로당 방문을 경로당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수영 순분면장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보고회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집중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올 여름 기상 전망과 부서별 대책을 공유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완도군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고 폭

염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로 준설과 상수 침수 구역 정비, 산사태 취약 시설·급경사지·재해 위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보고회 이후에도 재난 취약시설 관리 등을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장성군, 26억 투입 산림재난 예방 숲가꾸기 추진

장성군은 26억원을 투입해 산림재난에 강한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산불예방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공익림 가꾸기로 구분되며 총 1000여 ha 규모다.

주목되는 사업은 '산불예방 숲 가꾸기'다. 장성군은 나무의 밀도를 조절하고, 숲속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숲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지치기와 숲아베기 작업을 통해 산불 확



장성군이 26억원을 투입해 산림재난에 강한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 제공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다. 650ha에 걸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편백, 상수리, 목백합 등 큰 나무들은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1~3년생 어린나무 주변은 가지를 정리해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풀베기, 덩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공익림은 산림 공유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 3월 발생한 전국규모 산불은 산림 10만여 ha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면서 "산림재난에 강한 숲을 만들어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숲이 지닌 경제성과 공익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진도경찰, 내고장·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

진도경찰서가 진도군이 추진 중인 '내고장·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탤다.

2일 진도경찰서에서 따르면 '내고장·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은 진도군 내에 거주·근무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입을 장려하는 운동이다. 진도군은 지역기관·단체·사업체 등과 협력해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주소갖기 캠페인 동참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는 일이다"며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장학금 기부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한여농함평군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가 함평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사)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는 함평나비대축제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했다.

한여농 함평군연합회는 10개회,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농업 발전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은정 한여농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은 물론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목포해경,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목포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지역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목포시, 신안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방, 육군 등 총 14개소 15명이 참석한 연안에서의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연안해역 위험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